특집. 다문화 시대의 언어 교육 정책

다중 언어 육성 이론의 동향과 캐나다, 미국, 일본의 다언어 · 다문화 교육 정책

나카지마 가즈코 토론토대학교 명예 교수

1. 머리말

이민 대국인 캐나다나 미국뿐만 아니라 이민 정책이 없는 일본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다양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증가나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으로 시집 온 외국인 신부 등 이른바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나라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이러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을 따라 입국하는,이른바 '외국인 아동 학생', 혹은 입국 후 탄생한 '뉴커머(newcomer)' 아이들의교육은 어떠해야 할까. 이 글은 언어 형성기(2~15세)의 '문화적·언어적 배경이 다른 아동 학생(CLD 아동, Culturally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에 초점을 맞추어 국익으로 연결되는 언어 자원의 입장에서다음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1) CLD 아동의 두 언어·다언어의 발달(예를 들면 도달 목표 설정, 언어 발달의 기초 지식, 학력과 정체성의 관계, 계승어 교육의 중요성 등)
- (2) 캐나다·미국·일본의 CLD 아동에 대한 교육 정책의 현황과 그 비교
- (3) CLD 아동들에 관한 말뭉치 개발의 중요성

2. 언어 자원으로서 CLD 아동의 두 언어 · 다언어 발달

CLD 아동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학교 언어, 제2 언어 또는 현지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정 언어, 제1 언어 또는 계승어!)) 양쪽 모두를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귀중한 언어 자원이 될 수 있으며, 이중 언어 화자나 다중 언어 화자로서 이민국과 출신 국가 양쪽에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어 습득 도중 계승어를 상실하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균열이 발생하며, 정서적 불안정 및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 종국에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범죄자가 되어 나라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현지어 습득은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계승어가 버팀목이 되어 주지 못하면 간혹 읽기ㆍ쓰기 능력이나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어중간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CLD 아동을 이중 언어 화자ㆍ다중 언어 화자로 육성하는 것이 국익으로 연결되는 바람직

¹⁾ 부모에게는 모국어이지만 아이에게는 부모로부터 계승한 언어라는 의미에서 '계승어'라 한다.

한 교육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1. CLD 아동 언어 교육의 도달 목표와 언어 발달에 대한 기초 지식

우선 CLD 아동의 언어 교육에서는 읽기, 쓰기까지 가능한 고도의 이중 언어 화자 육성을 도달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중 언어 사용 (bilingualism) 및 이중 언어 화자 교육의 권위자인 토론토대학교의 짐 커민스(Jim Cummins) 교수가 자전거의 예로 선보인 것처럼, '(현지어) 단일 언어 사용(monolingual)'(바퀴 한 개), '부분적 이중 언어 사용 (partial bilingualism)'(큰 바퀴와 작은 바퀴의 편성), '고도 이중 언어 사용(proficient bilingualism)'(두 개의 바퀴), '이중 제한적 이중 언어 사용(double-limited bilingualism)'(평크 난 두 개의 바퀴)이라는 네 개의 유형 중 선택한다면, CLD 아동이 '이중 제한적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는 것을 저지함과 동시에 계승어와 현지어를 모두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한 '고도 이중 언어 사용자'로 육성하는 것을 이들의 언어 교육 도달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증적 연구에서 '고도 이중 언어 사용자'로 자라는 것은 사고의 유연성, 메타언어 인지, 제3ㆍ제4 언어 학습의 능숙 등 인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 연소자 언어 습득의 특징

성인 학습자와 달리 제1 언어가 형성되는 시기인 언어 형성기 연령 대에 있는 연소자(2~ 15세) 언어 습득의 특징은, 제2 언어나 제3 언어 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것이다. 즉, 연소자는 교사의 가 르침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어를 사용하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거나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이는 먼저 친구들의 언어를 관찰하고, 다음에 언어 행동을 휴 내 내는 형태로 현지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그 속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또한 아이가 발화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침묵기(silent period)' 라는 시기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임하는 어른이 우선 신경 써야 할 점은, 연소자가 지닌 자연 습득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원어민 화자인 아동 학생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질수 있는 풍부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언어 습득에 필요한 시 간이 회화 능력(CF, Conversational Fluency), 변별적 언어 능력(DLS, Discrete Language Skills), 교과 학습 언어 능력(ALP,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이라는 언어 능력의 세 측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다. 이 세 개념은 커민스 교수가 2000년 즈음에 그때까지 제창해 왔던 기 본적인 대인 관계 의사소통 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과 교과 학습 언어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에 대한 개정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화 능력 (CF)은 체재 기간이 2년 정도 되면 획득 가능한 것이다. 변별적 언어 능 력(DLS)은 문자 습득과 어휘나 문법 각각의 기능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어를 예로 들면, 히라가나 문자의 습득에 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한자의 습득에는 몇 년이나 걸린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교과 학습 언어 능력(ALP)을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 간은 모어나 계승어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르다. 8세 이후에 입국했을 경우, 즉 모어의 기초가 생긴 후에 국경을 넘어 이동했을 경우에는 5년 에서 7년이 걸리고, 8세 이전에 입국했을 경우, 즉 모어의 기초가 확립 되기 전에 이동했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7년에서 10년의 세월 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아동이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 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실제 모어 화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교과 학습 이 가능하기까지는 상상 이상의 세월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수행된 2세(世) 아동에 대한 대규모 연구 조사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모어 화자 아동을 기준으로 교과 학습 언어 능력(ALP)의 획득을 서두르 는 것은 상책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 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급히 서두르면) 첫째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소외감이 높아진다. 둘째로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힘을 잃게 된다. 면접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은 학교에서 자기 인식과 자기 상실의 혼란 속으로 내몰려, (불완전한) 외국어로 말하는 것에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어(현지어) 습득도 불충분하게 되고 부모와의 안정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다시 학습 의지도 잃게 되는 것이다.(Portes & Rumbaut 2001:129~30)

둘째는 현지어와 계승어의 힘의 관계이다. 두 언어의 힘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인지, 공유 면이 있어서 전이(transfer)가 일어나는지 하는 문제이다. 전이란 한 언어로 습득한 지식이나 학력이 다른 언어 습득의 전달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언어에서 공유된 언어 영역으로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것은 음운 인식, 학습 전략, 메타언어 인식, 추상적인 개념 등이 있지만, 최근에는 커민스(1996/2001)의 공유설(두 언어 상호 의존설, 빙산설, 사고 탱크설이라고도 불림)에 보태어 공유된 개념 체계(Shared Conceptual System, Francis 2000), 문해력 공유기저 저장소(Common Underlying Reservoir of Literacy Abilities, Genesee et al 2006) 등에서 전이의 영역이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법도 시도되고

있다(예: Cummins 2009). 또 계승어의 읽기, 쓰기 능력도 현지어 교과학습 언어 능력(ALP) 획득의 하한선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2.3. 정체성(identity) · 학력과 계승어의 관계

다수의 모국어 화자 아동 학생을 위한 몰입(immersion) 교육과 달 리 소수의 CLD 아동이 현지 학교에서 모국어 화자 아동 학생과 함께 학 습을 하는 경우는 서브머전(submersion) 상황2)이 되기 쉽다. 게다가 교과 학습 언어 능력(ALP) 획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앞 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어 학습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편, 그 사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의사 소통 수단인 계승어가 후퇴하여, 부모가 계승어로 말을 건네도 현지어 로 응답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은 집안에서도 소외감을 맛본다. 나아 가 CLD 아동들이 사춘기를 맞이할 무렵에는 부모와 자식의 언어 격차 (language gap)가 감정 전달의 단절로 이어져, 진학ㆍ취직ㆍ연애 등과 같은 중요한 일을 상의할 상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회도 없는 상황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CLD 아동들은 자신들이 단지 유 아기에만 사용했던 계승어에 능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들이 그들을 계승어 원어민 화자로 간주함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된다. 즉, 계승어를 충 분히 신장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학력 향상이나 이중 언어 화자로의 육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중 언어 화자 육성에 필수 불가결한 현 지어와 계승어 지원에 관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여러 나라의

²⁾ 현지어 모국어 화자 사이에서 '물에 빠져서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정책을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Churchill 1986).

- 단계 1: 현지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특별 보강 프로그램(영어 는 ESL, 일본어는 JSL)³⁾을 설치한다.
- 단계 2: 현지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가정교사, 상 담사 등)이나 현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사회 복지사, 통역사 등)을 제공한다.
- 단계 3: 학교 당국 · 교사가 CLD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다수의 모국어 화자 아동에게 국제 이해 교육, 반 인종차별 교육 을 실시한다.
- 단계 4: CLD 아동이 계승어를 짧은 시간에 후퇴 · 상실하는 것에 대한 시책으로 계승어 프로그램(정규 과정의 일부 또는 방과 후)을 학교 내에 설치한다.
- 단계 5: 계승어를 매개어로 사용하는 교과 학습을 실시한다.
- 단계 6: 다수와 소수 언어 집단이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듯 이, 소수 언어 집단을 위하여 소수 언어를 공용어로 하는 특별 교 육기관이나 학제를 설치한다.

코슨(Corson 1999)은 이 단계표를 사용하여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대다수의 나라가 단계 1과 단계 2에 머물러 있으며, 단계 3, 4, 5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며, 단계 6을 실시하는 나라는 캐나다뿐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요컨대, 세계를 통틀어 현지어 지원이나 현지 생활적응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계승어까지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지극히

³⁾ ESL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를, JSL는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를 의미한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캐나다 · 미국 · 일본의 CLD 아동 언어 정책

앞의 6단계 표를 주축으로 캐나다 · 미국 · 일본의 CLD 아동을 위한 언어 정책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국 언어 정책 전반의 특징, 현지어 교육과 학력 지원 실태, 계승어 교육 정책을 차례대로 논의한 후 마지막에 이를 일람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3.1. 캐나다

캐나다는 '이중 언어 체제에서 다문화주의'라는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자 부모의 모국 문화와 모국어 교육을 보장하는 권리를 법률로 지켜주는, 많지 않은 나라 중 하나다. 4) 캐나다의 교육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 관할이므로 취학 연령기 아이의 70% 정도가 이민자 자녀인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 주의 실태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우선 현지어 교육·학력 지원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꽤 제대로 지원 체제가구축되어 있다. 현지어 교육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LD(English Literacy Development), LEAP(Literacy Enrichment Academic Program)라는 세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있다. ELD는

⁴⁾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 수상이 국회에서 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1970년이었으나, 이것이 다문화주의법(Multiculturalism Act)으로 법제화된 것은 1988년이다. '국익으로 연 결되는 언어 자원'이라고 하는 이념 아래 4~14세 아동의 계승어 유지 권리가 보장되었다. 이에 계승어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23~25명 이상 모여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하 면 주 2.5시간의 계승어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사 월급의 일부 부담 등).

영어 회화는 할 수 있지만 읽기·쓰기가 불가능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LEAP(Literacy Enrichment Academic Program)는 교과 학습 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5)

캐나다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 자격 제도일 것이다. 이미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ESL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Part 1), 교과목으로서 ESL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Part III), CLD 아동의 수가 많은 학교의 교장, 혹은 코디네이터가 되는 자격(Part III) 등 세 가지의 추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ESL 교사가 원적 학급의 담임에 대해관리자적 입장에 설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에는 CLD 아동 관련교사 지침서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용 지침서도 풍족하다. 6) 또 주 교육위원회가 솔선하여 계승어 유지를 위한 보호자 계몽에 노력하고 있는점도 간과할 수 없다. 7) 게다가 'STEP to English Proficiency'라고 하는영어 능력 평가 지침(2012)도 7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작성해 오고 있다. 대체로 4~12세 아동에 집중하여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CLD 아동이 14세가 되면 학업 능력 면에서 현지 아동을 앞지를 수도 있다고 알려져왔다.

계승어 교육으로, 온타리오 주에서는 4단계,8) 중서부에 있는 세 개의

⁵⁾ LEAP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40개교, 중·고 교 15개교가 있으며, 하계 과정도 제공된다.

⁶⁾ 예를 들면, Many Roots Many Voices(2005)가 있다. 이 자료는 www.edu.gov.ca/eng/document/manyroots/에서 관련 내용을 내려 받을 수 있다.

⁷⁾ 예를 들면, 읽기와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 언어판 DVD를 배포하거나 보호자 면담 영상 샘플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⁸⁾ 민간 주도형의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으며, 또 이탈리아어나 중국어 화자 밀집 지역에는 교육위원회 주도로 정규 과정의 일부로 계승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예를 들면 토론 토시의 주말 계승어 프로그램은 현재 600개 가까이 된다.

주에서는 5단계의 계승어와 영어 부분 몰입 프로그램(partial immersi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9 캐나다는 소수 언어인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여 캐나다 전국 어디에서나 프랑스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6단계까지 이른 나라라 할 수 있다.

3.2. 미국

미국에서는 영어 보강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ELL(English Language Learners)이라고 부른다. 미국 취학 연령기 아동 학생의 11%가 ELL이라고 하는데, 가르시아(Garcia 2008)에 의하면 이 중 76%가 스페인어화자인데다가 빈곤한 가정이 75%이고, 이들의 91%가 도시에 모여 살며, 부모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가 50%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ELL 문제는 부모의 인적 자본(학력, 직업, 현지어 능력 등)이 낮아 발생하는사회 문제와 중첩됨을 알수 있다. 게다가 이들의 50%가 초등학생이며,미국 태생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취학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주는15개뿐이다. 최근에는 ELL 고등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ELL을 위한 현지어 교육과 학력 지원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비교 · 대조하면 알수 있는 것들이 많다. 우선 (1) ESL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어를 할수 있을 때까지 모국어로 학습하는 이행형 이중 언어 프로그램(Transition Bilingual Program)이 1974년에 시작되었지만 1998~2002년에 3개의주에서 주민 투표를 한 결과 이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1년 과정의 (2) 구조화된 영어 몰입 프로그램(Structured English Immersion

⁹⁾ 앨버타 주의 에드몬튼 시에는 계승어 몰입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초등학교가 15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가 8개교가 있다. 이들 학교는 1974년에 개설된 것으로, 반나절은 계승어로, 반나절은 영어로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Program)이 채택되고 있다. 이 외에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 보호(교과 통합) 프로그램(Shelter Program),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시 작된 (4) 양방향 몰입 프로그램(Two-way Immersion Program)이 존속 되고 있다.¹⁰⁾

CLD 아동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정책으로 2001년에 제정된 〈학업 부진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연방법)〉이라는 주(州) 통일 학력고사이다. 2014년까지 모든 ELL이 영어에능숙한 영어 전문가가 되어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기대되고있다. 이러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며, 이 학교 학생들은 전학할 수밖에 없는 꽤 가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 21만 명의 CLD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Thomas & Collier 2002)에 의하면 계승어를 학습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성공하였으며, 이러한지원이 전혀 없는 서브머전 상황에 놓여 있는 CLD 아동의 학력이 가장낮다고 한다. 또 외국인 별도 언어 지도 수업(국제 학급)은 CLD 아동이원적 학급으로 돌아왔을 때 학력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이들이 교과 중에서 가장 습득하기 어려웠던 영역은 독해력이었다고 한다.

2001년 9 · 11 테러 사건 이후 즉시 계승어 화자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그후 계승어 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CLD 아동의 정체성 형성과 현지어 습득의 토대 마련을 위한 계승어 교육의 의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국가 안전이 위기 상황에 처했

¹⁰⁾ 양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모국어 화자와 스페인어를 계승어로 하는 CLD 아동이 같은 학교에서 각각의 언어(영어와 스페인어)를 수업 언어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꽤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이는 5단계에 해당하는 뛰어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을 때 이미 계승어 능력을 갖춘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3.3. 일본

일본의 귀국 · 외국인 아동 학생이란, 1970년대부터 다양한 경위로 도일한 중국인, 인도차이나 난민, 연수생, 일본계 남미인, 아시아계 국 제결혼자 동반 자녀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현재 일본어 지도를 필요 로 하는 CLD 아동은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며, 3,000명 규모의 지방 자 치 기관의 상황에 따라 그 숫자도 수용 체제도 다르다. 문부과학성의 국가 정책은 일본어 지원의 1단계와 학교 적응 지원의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체계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특 히, 일본어 지원을 위해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추가 기간제 교원 이 공급되고, ≪JSL 교육 과정 안내서≫ 초등학생 편(2001)과 중학생 편(2007), ≪외국인 아동 학생 수용 입문서≫(2011) 등이 개발되었다. 보다 특기할 점은 ≪외국인 아동 학생을 위한 JSL 회화 능력 평가: DLA≫ (2013)가 개발된 것이다. 실제로 일본어와 학업 성취를 위한 지원을 보 면 그 형태와 기간이 매우 다양하다. CLD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아이 치 현의 예를 보면, 초기 지도(생활 지도를 겸함), 외국인 별도 지도 수 업(원적 학급의 수업 없음), 외국인 별도 지도 수업(원적 학급 수업과 함께 편성), 순회 지도, 취학 전 학생 프로그램(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3주일에서 1년의 과외 프로그램) 등이 있다. ISL을 가르치는 공식 적인 교원 자격 제도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간제 교원, 일본어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교원이 상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년이어서 유아기 와 고등학생 시기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일본어 습득과 계승어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이중 언어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인식이 아직 없으므로 계승어 교육은 거의 0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승어 교육을 법률로 금지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는 3단계나 4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독특한 형태로는 제2 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는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 학교와 같이 독자적으로 계승어를 교육하는 학교(예: '브라질인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4. 캐나다 · 미국 · 일본의 비교

이상과 같은 상황에 입각하여 CLD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캐나다·미국·일본의 CLD 아동 정책 비교

	캐나다	미국	일본
국가 정책 · 계획	다문화법(1988)에 의한 CLD 아동의 계승어 유지 권리 보호	학업 부진 방지법 (NCLB)이라는 연방법에 의한 통합 정책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 대상 초·중학교에 지원 체제
대상 아동	이민자 자녀	이민자 자녀	귀국 아동 학생 외국인 노동자 자녀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신부의 동반 자녀 등
ESL/JSL 프로그램	3종류: ESL, ELD, LEAP	종류가 많음: ESL, 구조화 된 몰입 프로그램 (Structured Immersion Program), 양방향 몰입 프로그램(Two-way Immersion Program), 보호(교과) 통합프로그램 (Sheltered program) 등	초기 지도, 외국인 특별 지도 학급(국제 학급), 외국인 특별 지도, 개인 지도 수업, 순회 지도, 교과 보충

	캐나다	미국	일본
유아 교육 지원	이민자 자녀	있음(헤드 스타트(Head Start), 주로 스페인어계)	거의 없음
중·고교 에서의 지원	있음	있음	거의 없음
언어 능력 평가	4단계 지침(STEP to English Proficiency)	원어민 화자와 동일한 통일 학력고사(영어, 산수·수학)로 통합됨	회화 능력 평가(DLA, Dia- logic Language Assessment) (네 가지 기능 평가와 참조 범위로 지원도를 판정)
지도자	ESL 교원 (추가 자격 필요)	자격 없음, 자격 취득 중인 교사도 있음.	자격을 묻지 않음
교사 양성 제도	3종류(온타리오 주) ESL, 교과목으로서의 ESL, 코디네이터 교장 과정	5종류의 자격 (캘리포니아 주)	없음
계승어 교육	다문화법 아래 각 주의 특징을 살린 계승어 프로그램	민간 언어 그룹 중심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에 계승어 과정	지역별 지원 그룹의 자원 봉사 활동 중심으로 제공

4. CLD 아동 언어 말뭉치 개발의 필요성

언어 능력 형성기의 CLD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지어 교육과 계승어 교육 및 학업 능력 획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립 국어원이나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와 같은 공적 기관에 의한 연소자용 언어 말뭉치 개발이 필수 불가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중고 등학생용 교과서 용어를 정리한 것은 있지만(예: 다나카 마키로 외 2010), 유아·초등학생용은 보이지 않는다. 학습에 필요한 각종 사전·교과서·교재 개발을 위해서도, 교과별 용어나 구어체에서 격식체·문 어체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위하여 품사, 문법, 어휘, 표기, 문체에 관한 연령별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연소자 언어 말뭉치 개발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Churchill, S.(1986), *The Education of Linguistic and Cultural Minorities in OECD Countries*,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Corson, D.(1999), Language Policy in Schools: A Resource for Teachers and Administrators, New York: Routledge.
- Cummins, J.(1996/2001), Negotiating Identities: Education for Empowerment in a Diverse Society, Los Angeles: California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 Cummins, J. (2008), Teaching for transfer: Challenging the two solitudes assumption in bilingual education, In Cummins and Hornberger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Vol. 5 Bilingual education*(2nd ed. 65~75), Boston: Springer,
- Francis, N.(2000), The shared conceptual system and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Findings from literacy assessment in Spanish and Nahuatl, *Applied Linguistics 21(2)*, 170~204.
- Garcia, O.(ed.)(2008), *Bilingu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Chichester, England, Wiley–Blackwell.
- Genesee, F., K. Lindholm-Leary, W.M. Saunders & D. Christian. (2006), *Educat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A Synthesis of Research Evid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rtes, A. & Rumbaut, R.G.(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STEP, Steps to English Language Proficiency(2012).
 - http://www.edugains.ca/resourcesELL/Assessment/STEP/STEPUserGuide_January2012.pdf#search='STEP+to+English+Proficiency
- Thomas, P.W. & Collier. V.P.(2001), A National Study of School Effectiveness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 Long—Term Academic Achievement, http://www.usc.edu/dept/education/CMMR/CollierThomasComplete.pdf#search='Thomas+%26+Collier'

- ジム·カミンズ(著)・中島和子 (訳著)(2011), 『言語マイノリティを 支える教育』, 慶応大学義塾大学出版会.
- 中島和子(1998/2001),『バイリンガル教育の方法-12歳までに親と教師にできること』, アルク 第3章.
- 中島和子(編著)(2010),「マルチリンガル教育への招待=言語資源 としての日本人・外国人年少者」,ひつじ書房.
-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国際教育課 (2012), 『外国人児童生徒の受け入れの手引き』.
-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国際教育課 (2013印刷中), 『外国人児童生徒のためのJSL対話型アセスメント: DLA』.